



# “문어발식 면세사업 확장... 적자 예견된 일”

### 도의회,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철수 집중 비판 4년간 160억원 적자에...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제주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이 4년간 1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문을 닫으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제주관광공사가 항만면세점 등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적자 규모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8일 제382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최근 철수한 제주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과 관련해 사업 실패에 따른 혈세 낭비 등을 거론하며 책임 추궁을 이어갔다. 이경용 위원장(미래통합당, 서흥

동·대륜동)은 “최갑열 사장과 임원진들이 시내면세점 진출을 결정할 당시 올바른 판단이 있었는가 의문”이라며 “당시 중문에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내면세점 진출이 2016년, 항만면세점 진출계획이 2015년이었던. 돈도 없는 관광공사가 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결정했는가. (적자 운영은) 그때부터 벌써 예견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신화역사공원 시내면세점 입점할 당시 5년 안에 1000억대 매출, 360억 순이익 장담

은 공허한 페이리가 됐다”며 “안타깝게도 누적손실만 267억이 발생해 근본적인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항만면세점도 99억이 투자됐지만 일방적인 방향만 설정돼 있지. 구체적인 결과가 없다”며 “2017년 20억에 이어 2018년 30억, 지난해 27억 올해는 50억까지 총 127억원을 도에서 재정 지원하고 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위험하다. 공사가 ‘돈먹는 하마’라는 오명도 있다”고 말했다.

박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 동갑)은 “면세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적자만 267억원이며, 공사 운영비를 위해 혈세 127억원이

투입됐다”며 “항만 면세점도 99억원을 투자해놓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항만시설과 관련해 제주도 해양수산국과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재정적인 부담으로 시설 관리 매입 절차가 쉽지 않아 일부 관리권으로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내면세점 철수와 관련해 “면세 사업에만 집중하다보니 관광마케팅에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만 면세점도 정리하고 마케팅 중심으로 가야겠다. 지정 면세점에 올인하고 브랜드 유치와 JDC와 치밀하게 협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표고버섯 수확 18일 서귀포 하원동 표고버섯농가에서 수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강희만기자

# “영농 부산물 소각하면 과태료?... 탁상행정”

### 도의회 환도위 조례 심사 역효과 우려 현실화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영농 부산물 소각 시 과태료 부과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영농 부산물 소각 과태료 부과 위한 조례 개정 추진에 따라 ‘무더기 벌금’이 우려된다며 시행 전 홍보기간 등을 거친 뒤 제주현실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8일 제382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조례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강연호 의원(미래통합당, 표선면)은 “제주지역은 1차산업 비율이 15%가 넘는다. 조례안처럼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무더기로 과태료 부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고려해 시행 전 충분한 홍보 기간 등을 거쳐 제주의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1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38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도의회 제공

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농산물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미세먼지 저감, 화재 예방 차원이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조례대로라면 농민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뻔하다”며 “특히 콩, 감귤 등 발작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현실적으로 파쇄만으로도 처리가 어렵다. 농림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추

진하는 사항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농업부서와 제주도농업기술원 등과 논의를 진행한 뒤 (개정)추진하고 있다”며 “영농 부산물은 파쇄를 거쳐 처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도 “예전에는 (영농 부산물)을 빠르게 소각했다. 이는 병해충 예방

차원의 민간요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그렇다면 도에서는 왜 들불 축제를 여는 것이냐. 예전 목축사업 품종이라 해놓고 개회하는데, 농민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한다. 미세먼지 환경오염의 주된 사유를 농업으로 돌리는 것은 대책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세계환경수도, 환경자원총량제 등의 추진 활동 미흡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 동을)은 “제주도가 환경 분야로 이슈를 너무 키우다 보니 벼쳐서 일을 못하는 것 같다”며 “세계 환경수도 조성 등을 위한 추진 활동도 미흡하다. 추진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세계환경수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주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단순 언어적 표현의 하나로 접근하면 큰일이다”며 “도민들의 공감대, 제주 방문객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환경도시 추진의 지지부진한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 멸강나방 유충도 한달 빨리 나와... 농기원 “피해 큰 만큼 초기 방제를”

옥수수 등 화분과작물에 큰 피해 주는 멸강나방 유충이 작년보다 한달 빨리 발생하며 피해예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기 방제가 요구된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이 발견된 5일 후인 12일에는 멸강나방 유충이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달 빨리 발생한 것이다.

농업기술원은 해당 옥수수 재배 포장에서 멸강나방 2~3령 유충이 발생됨에 따라 예방 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초기 방제를 당부했다.

멸강나방은 매년 5-6월 중국에서 성충이 날아와 산란 후 부화한 유충이 연간 3-4회 목초지를 비롯해 벼, 옥수수, 기장 등 화분과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지난해 멸강나방 유충은 6월 14일 한림읍 대림리에서 발생했고 올해의 경우는 앞선 2014년 5월 13일 한림

귀덕리에서 발생한 것보다 하루 빨리 발견됐다.

멸강나방과 열대거세미나방은 광식성 해충으로 애벌레가 있을 때마다 먹다가 점차 줄기와 이삭까지 먹어 치우기 때문에 발생하면 수일 안에 큰 피해를 줘 사전 예찰을 통한 초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농업기술원은 멸강나방과 열대거세미나방 발생 지역에 중심으로 기주작물 재배지에 대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유충 발생 시기를 예측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해 방제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열대거세미나방 방제를 위한 약제는 27개 작물·284품목, 멸강나방은 7작물·77품목이 등록돼 있다. 농사로(www.nongsaro.go.kr)의 ‘농자재-농약-농약등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근욱기자

### 생활발효 과정 교육생 모집

직접 만든 누룩으로 장류, 전통주, 음료를 만들어 안전하고 건강한 발효식품을 생활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19일부터 제주 식문화 리더 양성을 위한 ‘쉽게 만드는 생활발효 이야기’ 교육생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6월 24일까

지 총 5회·21시간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에 운영되며 교육 대상은 전통식문화에 관심 있는 농업인, 소비자 등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내가 만드는 누룩과 알메주 만들기, 똑딱 만들어 먹는 즉석 고추

장과 알메주 간장·된장 만들기, 전통주와 발효조미료 만들기 등이다.

신청은 전화나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부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촌자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근욱기자

## 2020 제주지역혁신프로젝트 PE(실습기업)기반 세대상생 일자리사업

# PE(실습기업) 퍼실리테이터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PE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은 PE프로그램 컨설턴트, 코치, 직무 멘토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 모집개요

모집기간	교육인원	교육일정 및 시간
5.14(목)~6.3(수)	20명(선발)	6.15(월)~7.10(금) 13:30~17:30

### 교육참여 대상

경력단절 여성 및 신중년으로 기업 실무경험이 있으며 취업 및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교육특전

- 교육 수료생 : PE국제자격증(민간자격) 취득 가능
- 교육 수료후 : PE퍼실리테이터로 취업 연계

### 주요내용

- PE와 PE프로그램: PE퍼실리테이터 이해역할, 기본지침, 전망, 직무이해 등
- PE교수법(스마트워크): 문서 및 콘텐츠 협업, 파일 관리방법, 화상회의 등
- PE교수법(코칭과 퍼실리테이션): PE코칭, 피드백, 퍼실리테이션 이해, PE설립 등
- PE프로그램 운영실습: PE등록과 구축, 부서별 직무실습  
인사/총무, 구매/물류, 재무/회계, 영업/마케팅 등
- 생애경력설계, 협동조합 창업연계, 직무소양 및 취업대비교육

### 교육장소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 jejuwom@naver.com

### 교육문의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 064-753-8090  
-제주중앙년일자리희망센터 : 064-710-4502

